

왕에서 사대부 부인까지...조선 미식가들 음식 취향 엿보다

“새로 한반도에 유입된 이 두 가지 채소 중에서 이육은 고추를 유별나게 좋아했다. 그는 겨자장보다 고추장을 더 즐겨 먹었다. 서울에 있을 때를 회상해 보매, 술집에 들어갈 때마다 연겨루 술을 몇 잔 마시고 손으로 시렁 위의 붉은 고추를 집어서는 가운데를 찢어 씨를 빼내고 장(醬)에 찍어 씹어 먹으면 주모가 반드시 흠칫 놀라며 두려워했다. 남양(南陽)에 살게 되면서 가루를 내어 양념장을 만들어 생선회와 함께 먹는데, 역시 겨자장보다 나왔다.”(본문 중에서)



조선의 미식가들

주영하 지음

“미식은 과도함의 적이다. 폭식·폭음하는 모든 사람은 미식의 명단에서 제명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프랑스 법률가인 장 앙탈레 브리아사바랭이 ‘미각의 생리학’에서 한 말이다. 그에 따르면 미식은 “미각을 즐겁게 하는 사물에 대한 정열적이고 사리에 맞는 습관적인 기호”라고 정의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면 된다. ‘음식은 곧 그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오늘의 미식가는 음식을 품평하는 사람이다. 프랑스로 미식은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즐기는 일”을 뜻한다.

시대를 초월해 미식가들이 있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미식가들이 있었다. 조선의 미식이 15인의 음식 취향과 경험이 담긴 음식문화사가 책으로 발간됐다. 음식을 문화와 인문학, 역사학 시선으로 연구해온 음식인문학자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조선의 미식가들’이 그것. 주 교수는 조선시대 문헌을 바탕으로 음식의 식재료, 요리법, 식후감(食後感)을 풀어낸다.

저자는 “맛에 대한 취향은 시대마다 다르다. 한 사람의 음식 경험에는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과 역사가 담겨 있다”며 “음식 글”을 통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보려고 노력했다”고 집필 의도를 밝힌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선비 이색은 원나라에서 들어온 소주와 두부에 관한 시를 지었다. 그는 빈속에 술을 마셨을 때의 서늘한 느낌을 “뺨속까지 퍼진다”고 했는데, 주당인 도연명과 취하기를 거부하는 굴원조차 반할정도로라고 읊조린다.

허균은 조선 말도 음식에 대한 평과 요리법, 장소 등을 ‘도문대작’에 자세히 기록했다. 부안의 명물 세 가지 식재료가 나오는데 사슴꼬리, 오징어, 민물새우가 그것이다. 특히 민물새우는 색이 붉은꽃 같고 맛이 좋다고 했다.

‘도문대작’에는 전라도의 식재와 음식이 꽤 나온다.



성균관 유생 이육보다 먼저 상추쌈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양념장으로 된장을 얹었지만, 매운맛을 즐긴 이육은 겨자장과 고추장을 얹어 쌈을 싸 먹었다. (한식진흥원 제공)



김준근 ‘두부 찌는 모양’,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나주에서 나는 무는 맛이 배와 같고 물기가 많다고 적었다. 감태는 호남에서 나는데, 함평·무안·나주에서 나는 것이 맛이 매우 좋아 옛처럼 달다고 했다.”

고추 마니아였던 성균관 유생 이육에 대한 기록도 흥미를 끈다. 그가 남긴 글에는 고추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매운맛을 즐긴 그는 겨자장과 고추장을 얹어 쌈을 싸 먹었다고 한다.

조선 왕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영조는 고추장을 좋아했다. 그는 “옛날에도 만약 있었다면 틀림없이 먹었을 것이다”라고 할 만큼 매운 음식을 선호했다.

“승정원일기”에서 고추장과 관련된 이 단어들 검색하면 영조 대에서만 22건이 검색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영조야말로 조선 국왕들 중에서 가장 고추장을 즐겨 먹은 왕이 아니었을까 싶다. 심지어 75세의 영조는 스스로 “송이·생복(生鰯)·아치(兒雉, 어린꿩)·고추장 이 네 가지 맛이 있으면 밥을 잘 먹으니, 이로써 보면 입맛이 영구히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고추장을 즐겨 먹었다.

조선 선비들은 산문과, 시, 일기 등에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다. 이들은 질제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실학자인 이덕무는 “음식을 탐내게 되면…… 모든 병이 생길 뿐 아니라, 탐식으로 인해

사치할 마음이 생기고, 사치로 인해 도둑의 마음이 생기고, 도둑의 마음으로 인해 사나운 마음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조선 선비들의 미식에 대한 글을 읽다보면 오늘의 세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성균관 유생 이육의 말이다. “먹을거리는 다만 맛으로 취하여야 하고 명성으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식(耳食, 귀로 먹는다)을 하여 이름만 취하고 맛으로 취하지 않는다.”

〈휴머니스트출판그룹·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수초 수조 **최영건 지음** **중국문화유적답사기** **김중원 지음** **의열단, 항일의 불꽃** **김삼웅 지음**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인물의 이야기를 여섯 개의 시점으로 그린 ‘공기 도미노’로 독자들에게 자신을 각인시켰던 최영건 작가. 그가 이번에 7편의 단편을 수록한 ‘수초 수조’를 펴냈다. 이번 소설집은 성장 가능성으로서 그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작집으로, 부서지고 몰락하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실적인 작품들 가운데 ‘수초 수조’와 ‘물결 벌레’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수초 수조’는 강박적 진술과 초현실적 설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지나친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정함으로 다가온다. 소설에서는 우울과 고독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현대인의 심해를 상징한다. ‘물결 벌레’는 주체의 상대성에 천착한 소설이다. 타자 없이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을 토대로 주체의 상대성을 드러낸다.

이밖에도 타자를 향한 비난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쥐’, 나이 든 카페 소유주와 젊은 카페 알바생의 갈등을 그린 ‘감과 비’, 친척 할아버지 집에 얽혀 사는 여대생의 불편을 형상화한 ‘더위 속의 잠’ 등도 인간의 심연에 자리한 고독과 다양한 감정들을 잘 드러낸다.

섬세한 작가의 시선과 이를 풀어내는 문장은 단연 ‘최영건 문체’라 부를 만큼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한다.

박진성 소설가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걱정하는 무한한 다정함, 적극적인 체념, 궁극적인 공허함, 이런 것들을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나름의 질서와 규칙 속에서, 동심동심 저 혼자 살아가는 수초처럼 허약하고도 견고한 소설의 환상. 다름 아닌 최영건 소설이다”고 평한다.

〈민음사·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중국인 흥미로운 나라다. 정좌경우(政左經右)를 표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역사기행’, ‘중국 서남부 자연문화유적답사기’의 저자 김중원 박사가 ‘중국문화유적답사기’를 펴냈다. 책은 저자가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결과물이다. 저자는 중국 여행을 여행할 때마다 보고 느낀 중국의 진정한 힘은 방대한 땅과 인구가 많다는 규모가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중화사상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책에서는 중국의 여러 성(省) 가운데 역사가 깊고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5개 성에 초점을 맞췄다. 중화명명의 발상지인 허난성은 중국고대역사문화의 요람지이다. 허북성은 중화민족발상지 중 한곳으로 만리장성의 동부기점이며 열하일기의 본향이다. 서안은 ‘삼천년역사간사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문화의 보고이다. 강소성은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한 고장이며 절강성은 중국공산당의 탄생지이자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흔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중국 명인 중에는 “모름지기 군자는 만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만 리 길을 여행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공부할 때라도 경험을 따를 수 없다는 의미로 여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책에는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중국 최초 불교 사찰 ‘백마사’, 갑골문자 발견지 ‘안양’, 유네스코 등재 세계지질공원 ‘운대산’, 시안 최고 명소 진시황 지하군단 ‘병마용갱’ 등 150여 명소와 유적지가 나온다.

〈여행마인드·2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의로운(義) 일을 맹렬히(烈) 실행하는 단체(團). 1919년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의 청년 13명이 창단한 독립운동 단체로,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무장투쟁으로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한 항일단체. ‘암살’과 ‘파괴’ 두 가지 양식의 직접행동으로 10여년에 걸쳐 크고 작은 의열투쟁을 34번 일으키며 식민통치의 근간을 앗아고자 한 ‘의열단’은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독립운동사·친일반민족사 연구가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아 창단부터 민족혁명당, 조선의용군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역사를 알아보는 책 ‘의열단, 항일의 불꽃’을 펴냈다.

책은 의열단의 창단 배경부터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리며 맞이한 결말까지 상세한 기록을 담았다. 창단 당시 명시한 ‘죽어야 할 일곱 대상’(7가살)과 다섯 가지 파괴 대상(5파괴)부터 시작해 일제 경찰관서 폭파, 일본군 고위장교 저격, 일제 수탈기관 폭파, 일왕 거주지 폭탄 투척, 밀정과 변절자 암살 등 의열 투쟁의 기록뿐 아니라 법원에서 이뤄진 심문조사 내용이나 재판 기록, 의열단 단원이 남긴 증언, 일제의 정보문서에 기록된 거사 준비 과정 등 세세한 정보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저자는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 주필을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문화론을 가르치고, 4년여에 걸쳐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으며 ‘백범 김구 평전’, ‘울산낙약 1905 그 끝까지 않은 백년’, ‘안중근 평전’ 등을 펴냈다.

〈두레·1만 8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19-2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배움의 문을 두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모집

1 모집과정

전공	운영일시	과목당 모집인원	과목당 수강료	기타사항
미용학	주간(화, 수) 09:00~18:00(15주)	30명	20만원	
아동학	주간(월, 화, 수) 09:00~15:00(15주)	40명	15만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필수 및 대면교과목 운영
사회복지학	야간(화, 수, 목) 17:00~23:00(15주)	40명	15만원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전공 및 자격 취득

- 미용학 전공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미용사 면허증 취득)
- 사회복지학 전공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아동학 전공(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4 모집일정

- 접수 및 등록기간 : 2019년 7월 22일 ~ 9월 6일
- 교육기간 : 2019년 9월 9일 ~ 12월 20일 / 15주

5 접수 및 문의

- 950-3583~6 (평생교육원 행정실)
- 주소 : (우6239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3115호
- 홈페이지 : http://always.kwu.ac.kr

■ 비학위과정 모집

1 모집과정

■ 직업능력 교육과정

강좌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원)	정원	강사명	비고
1 부동신경매설무	목	19:00~21:00	20만	20	김찬수	
2 약용식물자원관리사	화	19:00~21:00	15만	20	양차열	
3 한자한문지도사(중급)	금	09:10~13:00	36만	15	선병공	24주
4 한자한문지도사(특급)	토	09:10~13:00	36만	15		
5 메이크업(국가자격증)	화	18:00~21:00	30만	20	손혜영	
6 네일(국가자격증)	화	18:30~21:30	30만	20		
7 네일(아트&창업)	목	18:30~21:30	30만	20	정다희	
8 실버요리지도사 2급 자격과정	월	18:30~20:30	20만	15		최경희
9 민요총체지도사 2급 자격과정	목	18:30~20:30	20만	15		
미래 4차 산업시대 인재육성을 위한 독서지도사	화	10:00~13:00	17만	20	심명자	
11 대화기술코치 독서토론지도사	수	10:00~12:00	18만	20	김태숙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하는 신나는 드론 축구 (2인1조)	금	18:00~20:00	15만원	15	김태중	8주
	토	10:00~12:00				

2 모집일정

- 2019년 7월 22일 ~ 9월 6일

3 접수 및 문의

- 950-3583~3586(평생교육원 행정실)
- 홈페이지 : http://always.kwu.ac.kr

■ 문화예술 교육과정

강좌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원)	정원	강사명	비고
1 화해정식(플로리스트)	수	10:00~12:00	20만	20	임은주	
2 한국무용(호남살풀이)	수	10:00~12:00	20만	20	백미성	
3 한국무용(직물반)	수	13:00~15:00	20만	10		
4 검도와 호신술	화/목	18:00~20:00	20만	30	이재방	
5 난타	화	19:00~21:00	15만	15	채준례	
6 유희&수채화	월	09:30~12:30	17만	12	문명호	
7 쉽게 배우는 연필인물화	목	10:00~12:00	17만	12	박진휘	
8 리듬과 함께 활력 충전 "리인댄스"	월	17:00~19:00	15만	20	여순심	10주
9 힐링요가&필라테스	목	17:00~19:00	15만	20	여순심	10주
10 서예(초급)	금	10:00~13:00	17만	15		
11 서예(중급)	월	10:00~13:00	17만	15	고재문	
12 멋진 여행과 사진	주간	화	10:00~12:00	15만	20	유태준
	야간	화	19:00~21:00	15만	20	
13 한국전통춤(중급)	목	14:00~15:30	15만	20	박선옥	
14 한국전통춤(중급)	화	14:00~16:00	18만	20		
15 ★여행의 재미를 더해 주는 여행 스케치	수	10:00~12:00	15만원	12	박태영	
		18:30~20:30	15만원	12		
16 ★달빛 아래 히모니카	기초 심화	목	18:30~20:30	15만원	15	김재철